

도심 속 봄꽃 절정 '완산공원 꽃동산'

전주시, 겹벚꽃·철쭉 등 만개 '봄나들이 명소' 자리매김... 플라마켓·버스킹 운영으로 볼거리 확대

봄철을 맞아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에 겹벚꽃과 철쭉 등이 만개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봄나들이 장소로 제곱되고 있다.

전주시는 봄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한 완산공원 꽃동산에 봄꽃들이 절정을 이루면서 주말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는 시민들이 단순한 꽃 관람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플라마켓과 버스킹 공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곡교 방면 진입로 일원에서는 주말마다 버스킹공연이 펼쳐져 전통·현대 음악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플라마켓에서는 떡거리와 수공예품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완산공원 꽃동산은 약 1만5000㎡ 규모로, 겹벚꽃과 철쭉 등 다양한 봄꽃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



봄철을 맞아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에 겹벚꽃과 철쭉 등이 만개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봄나들이 장소로 제곱되고 있다.

성됐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 인근 주민이 1500여 그루를 식재한 이후 오랜 기간 정성껏 가꿔져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권희성 기자

으며, 시는 지난 2009년 이곳을 매입해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봄철 방문객 집중에 대비해 교통 통제와 주차 관리, 현장 질서 유지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객 맞이를 위해 시설물 정비와 환경 정비를 사전에 완료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완산공원 꽃동산에는 매년 봄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지 관광객은 물론 각종 촬영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봄철 정취를 즐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꽃동산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방문객들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영화 기술 진화' 한자리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맞아 5월 1일 영특한 대화·버추얼 프로덕션 세미나 개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영화 기술의 진화를 한자리에 엮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허진)은 오는 5월 1일 전주고사 CGV 1관에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을 맞아 영화 제작 기술의 흐름과 변화를 조망하는 '영특한 대화'와 '버추얼 프로덕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화 제작의 핵심 분야인 사운드와 영상기술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물론 지역 학생과 예비 창작자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영특한 대화'는 영화 음향 기술에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자리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인 '마더'가 흑백버전으로 상영된 후, 국내 대표 영화 음향 전문 기업인 '라이브톤'의 최태영 대표가 참여하는 스페셜 토크가 이어진다.

특히 스페셜 토크에서는 봉준호 감독 작품 전반의 음향 제작 과정과 철학을 중심으로, 영화 속 시너지가 어떻게 설계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공유될 예정이다. 또, 실제 제작 현장의 비하인드스토리나 관객의 질의응답을 통해 영화 음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제공된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AI와 버추얼 프로덕션, 영화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 버추얼 프로



봉준호 감독 '마더' 흑백버전

덕션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전주국제영화제 참가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방형 세미나로 운영된다.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성재 아카데미 대표가 '생성형 AI 기반 프리프로덕션: 스토리보드와 영상 프리비주얼 제작'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스토리보드와 프리비주얼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노 XON(엑스온) 촬영감독이 '버추얼 프로덕션과 영화 제작의 미래: 새로운 촬영 환경과 가능성'을 주제로 실제 제작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다. /권희성 기자

AI 활용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전주시, 5월 8일까지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주시가 AI 시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와 시장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8일까지 전주시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전주시 AI 활용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해외 바이어 발굴·상담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KOTRA 수출전문위원을 통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이 제공

되며, 유망 수출국 추천과 함께 플랫폼 선택, 광고 키워드 설정 등 체계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전북AI무역지원센터를 활용해 제품 활용과 AI 기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사진 보정과 배경 전환, 모델 합성은 물론 제품 상세 페이지와 광고용 숏폼 콘텐츠까지 제작할 수 있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 사업을 통해 SNS 광고 캠페인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바

이어를 발굴하고, 해외무역관의 검증을 거쳐 거래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시는 화상상담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에 대해서는 긴급지사화를 무료로 지원해 단기 마케팅을 넘어 후속 교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기업이 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8

일 오후 6시까지 KOTRA 무역투자24를 통해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기존 전시회·박람회 중심의 일회성 해외마케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으로 잠재 바이어를 선별하고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점을 확대하는 새로운 판로 개척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기업들은 온라인 타겟 마케팅과 해외무역관의 바이어 검증을 결합함으로써 단순 노출을 넘어 실제 거래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어 기존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보다 더욱 효과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희성 기자

자전거의 날 연계 '전주 올림픽 유치 기원' 현장 홍보

전주시민들이 야외 활동 하기 좋은 봄철을 맞아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며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망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치명자산 평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6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는 자전거의 날이 지닌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가치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시는 자전거 행진에 활용된 공영자전거 '꽃상이'에 전주 올림픽 유치기원 깃대·깃발을 부착해 이동형 홍보를 진행했으며, 별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주 올림픽 유치 기원

서명운동과 홍보 전단 배부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자전거를 매개로 한 이번 현장 홍보는 대규모 이벤트성 홍보를 넘어, 시민 참여형 행사와 올림픽 메시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실제로 자전거 행진 참가자와 행사장 방문객들은 꽃상이 홍보와 자전거 여행사업 안내, 스피닝 사이클 및 자전거 발전기 체험, 자전거 수리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전주 올림픽 관련 홍보 콘텐츠도 접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올림픽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환경 분야 행사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전주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도시의 비전을 꾸준히 알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4월 문화가 있는 날 '전주정원' 운영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 25일 관람객을 위한 4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전주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봄의 절정을 알리는 춘분을 기념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박물관 1층 교육체험실에서는 '전주정원'을 주제로 한 수채화 컬러링 체험이 진행됐고, 1층 로비에서는 전주정원을 소개하고 그 소중함을 알리는 이젤 전시가 진행됐다.

또, 박물관 지하 1층 강당에서는 자연 보호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상영됐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매일 문화 체험형 만들기와 무료 영화 상영,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매월 15일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